

주요 수입국 수출규제 관세청 고시정보 제공서비스

- '22.7.11, 빅데이터팀-

□ 추진배경

- 중국 등 주요 수입국에서 수출 규제 전 관세청 공고 등의 방식을 통해 규제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고 (아래기사 참조)

◆ 산업부, 2주 허비한 뒤 뒷북 대책회의...문대통령 순방 준비하다 외면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지난달 11일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그동안 검사를 하지 않고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개 비료 품목이 15일부터는 반드시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야만 통관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석탄가격 상승과 전력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요소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곧바로 우리나라의 요소수 대란을 빚게 했다.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지난달 11일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자료=중국 해관총서] 2021.1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통상업무 주무부처인 산업부 역시 11일 고시에 대해서는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15일 의무화되는 것에 대해 11일 내용이 나온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후 20일 이후에 국내 업계에서 요소 수입이 예상했던 것처럼 원활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 서비스 주요내용

- 한국의 주요 수입국 중 모니터링 대상 국 확정 (10개~20개)
- 해당국 관세청 홈페이지 중 수출규제 관련 사이트 주소 파악
- 특정 품목 수출규제 관련 이벤트 파악 로직 설계
- 수출규제 이벤트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 알람 및 해당링크 제공

□ 구축방안(안)

- 주요 수입국 및 수출규제 공고 페이지 확정
- 해당 사이트 크롤링 주기 확정
- 수출규제 이벤트 발생 시 알람과 함께 해당 링크 제공

* 제공항목: 수출규제를 시행한 국가 관세청 고시 페이지 링크

□ 예정사항 (고도화 시 검토)

- 서비스 가치 확인 시 고도화 진행
- 주요 대상국 품목과 한국의 HS-CODE 매핑작업 검토
- 수출규제 품목의 한국 HS-CODE 확정 및 해당 품목 영향도 파악